불교 콘텐츠 전문가로 길러야…

화랑 스님 · 김성철교수 동국大 불교대학생 사회진출 방안 모색

제4차 동국대불교대학발전위 세미나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들을 정신 치유나 명상 등 불교와 관련된 고급 콘텐츠를 공급할 전문가로 키워야 한다."

9월 12일 다향관 동국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4차 동국대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철 불교문화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불교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대학 졸업생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 정보화' 'NGO' '중국'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재학생 교과과정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 교수는 향후 정보통신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이전 산업화 사회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사고파는 직업이 환영받았지만, 미래에는 정신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직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문명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불교 NGO활동가도 유망한 분야로 제시됐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판적 견제세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불교를 주목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산화 이후 법맥이 끊겼지만 정부주도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중국불교의 조력자를 양성하는 것도 유망한 사회진출 방편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자신이 재직중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졸업생들의 열악한 사회진출 현황을 공개해 세미나 좌석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입학정원 40명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의 경우 2003년 2월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16명이었다. 그나마 종교관련 취업에 포함된 스님 13명을 제하면 단 3명. 이 가운데 학원 강사 1명, 조교 1명을 제하면 전공에 맞춰 취업한 경우는 불교방송 PD로 입사한 단 1명뿐. 2004년에도 불교계 신문에 입사한 1명이 유일했다. 2005년에는 일반 기업체 취업 5명과 조계종 포교원에 취업한 졸업생이 1명으로 불교학과의 존폐마저 걱정해야할 수준이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화랑 스님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계와 종단의 불교대학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포교와 전법에 필요한 인력 양성계획과 수급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화랑 스님은 "조계종과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불교인력정보센터(가칭)'을 설치하고 동국대 재단과 학교당국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는 그동안 불교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제, 교과과정, 우수교원 초빙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이번 4차 세미나의 논평에는 조의연 교수(동국대 학생처장),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용 행정관(청와대) 등이 참석해 '불자인재 양성'이라는 화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용수 기자

선거인단 보완 · 축소 ·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방안…13일 토론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4가지로 가닥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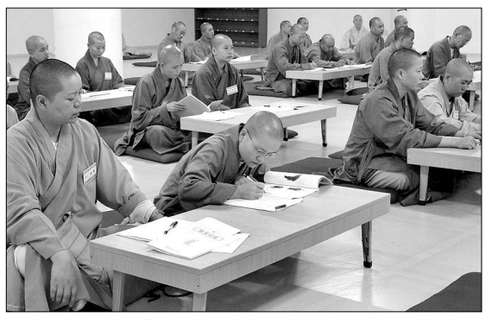
조계종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중원, 이하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9월 6일 회의를 속개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현행제도 보완(선거공영제 도입, 선거관리법 강화, 재적승 200명 이상 교구본사의 경우 100명 당 선거인단 1명 증가 포함) △선거인단 축소(선거인단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으로 한정) △추대(합의추대위 구성, 선거인단 추첨) △총무원장 권한 축소(임기 2년, 총무원 기채 · 재산처분승인권 교구종회로 이양) 등 4가지 개정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 추석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직선제(선거권자 구족계 10년 이상 비구 · 비구니로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논외로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종헌 개정안 4개(총무원장, 법안 스님 외 26인, 수현 스님 외 34명, 무자 스님 외 25명 제출) △중앙종회법 개정안 2개(호법분과위원회, 토진 스님 외 4인) △총무원법 개정안(수현 스님 외 9명)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등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중앙종회의원 자승 스님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중국의 젊은 학승들이 통도사에서 간화선 강의를 들으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중국수행단 한국불교체험

종단협, 36명 대상 통도사등서

중국의 젊은 학승들이 불보종찰 통도사를 찾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수행체험 프로그램에는 정명 스님(호국사 주지)을 단장으로 비구 20명, 비구니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수행체험단은 승가교육체계 소개, 간화선 강의 및 참선실수, 연등축제 소개 등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연등 만들기, 단청그리기, 삼보일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 밖에도 범어사, 불국사, 석굴암 등의 사찰을 방문했다.

천미희 기자

"진실 밝히고 반성 · 참회해야"

법장스님 日 '세계'誌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과 일본의 역할론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법장 스님은 일본 유수 월간지인 〈세카이(世界)〉지 10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한일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시인하며 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아시아는 늘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머리를 숙이고 참배하는 것은 마치 '당신들은 잘했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두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물질적,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일본의 정치인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대, 日 다이쇼대와 학술교류협정

김유혁 총장 타다코분 부총장과 7일 조인식

금강대(총장 김유혁)는 9월 7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일본 다이쇼(大正)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김유혁 총장과 다이쇼대학 타다코분(多田孝文) 부총장은 협정서에 서명하고, 양 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의 인적교류 ▲공동주제 연구등의 학술교류 ▲학술자료의 교환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제정해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다이쇼대는 1926년 설립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전교생 5,000여명에 인간학부에 불교학과, 인간복지학과, 인간과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문학부에 표현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인문학 분야의 명문대학이다.

조용수 기자

열반종에 불상 기증

태국왕실, 7톤 규모

열반종(총무원장 해곡) 와우정사가 태국 왕실로부터 무려 7톤이 이르는 금동불상을 기증받았다. 이 금동불상은 태국 '프라그루 선톤 키자락사'라는 절에 의뢰해 5년간 제작한 것으로 높이 5m40cm, 너비 2m85cm에 이르는 대규모 불상이다.

와우정사와 태국 왕실은 1970년 태국공주의 방문을 계기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왔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외관을 입힌 이 불상 외에도 좌우에 안치될 60kg 불상 2구도 함께 보내왔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26~30일, 선거법개정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은 9월 7일 타워호텔 회의실에서 제20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67회 임시 중앙종회를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167회 임시종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는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의 건을 비롯해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건의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방장 종헌 종법대로 추대"

수좌회, 종회의장단에 '입장'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중앙종회의장단에 영축총림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현산 · 혜국 스님과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등 12명은 9월 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종회는 종헌 제105조와 총림법 제6조, 승려법 제35조 제36조 등 종헌 · 종법에 입각해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주지 '3개월 직무대행' 내홍

젊은승가회 "약속 지켜라" 참회정진 돌입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3개월간 주지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도사 젊은 승가회'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통도사 대웅전에서 3일간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지광, 영수, 희문 스님 등 통도사 젊은 승가회 소속 50여명은 8일 열린 고불식에서 취지문 낭독을 통해 "현문 스님이 대중스님과의 어떠한 공의도 거치지 않고 방장스님의 주지 재임추천서를 가지고 총무원에 가서 주지 대행 임명장을 받은 것은 대중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도사 젊은 승가회 운영위원 희문 스님은 "10일 오후 1시 예정된 참회정진 회향 때까지 현문 스님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대중공사를 통해 강제 사임시키는 방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문 스님은 "3개월간의 직무대행은 임기만료로 인한 주지 공석을 해결하고 9월 임시종회에서의 방장 추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종회가 끝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냅시다

지난 8월 29일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하여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동포 4천여 명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국민들이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명 피해도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종과 국경 종교를 뛰어넘는 인류애와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보냅시다.

기 간
■ 9월 5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모금 방법
■ 각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회 및 행사 때에 모금 활동 동참
■ ARS 모금 전화 1통화 하기 ■ 온라인 입금 하기

모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 ARS 전화 : 060-700-0482, 1통화당 5천원

○ *사부대중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피해민들에게 전달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0~25)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